

(가) <보기> 먼저

아스팔트 위에는

대상: 아스팔트(생명력X)

4월의 석양이 즐리고

배경: 4월(시간), 낮(시간)

<앞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 밑에서는

대상: 가로수(생명력O) → 의문: 앞사귀가 없다는 말은 대체 뭘까

일단 <보기>에서 언급된 자연물임은 알겠다.

오후가 손질한다.

소리 없는 고무바퀴를 신은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히 지나간 뒤에

대상: 자동차(생명력X)

상황: 아스팔트(정적)위로 자동차들(동적)이 지나다남

너의 마음은

'너': 누구를 호명하는 것일까?

우울한 해저.

정서: 우울함

너의 가슴은

'너': 누구를 호명하는 것일까? 반복하고 있다.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쉬러 오는

설수있나?

회색의 잔디밭

회색이 혹시 아스팔트의 회색을 의미하는 것일까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
들을 위하여

'위하여': 행인들의 위로를 해주나?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

대상: 아스팔트

→ 아! 지평선=바다(생명력O)에서 아스팔트(생명력X)로 생명력이 전이된 것을 '흉내를 낸다.'라고 한 것이군.

- 김기림, 「아스팔트」-

· 독해 후 사고

앞서 제시된 '회색의 잔디밭'은 맥락상 아스팔트가 잔디밭과 지평선을 흉내내는 중이라고 파악하여 자연물의 속성이 인공물에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너'는 아스팔트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아스팔트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므로 의인화이고 화자 자신의 감정인 '우울함'을 대상인 아스팔트에 이입한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가 우울하기에 잔디밭도 회색으로 보였을 것이다. (32번 보고 돌아와도 무방)

한편, 앞서 제시된 '앞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는 아스팔트의 속성이 전이된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앞사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상황에 대응된다. (34번 보고 돌아와도 무방)

(나) <보기> 먼저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배경: 봄(시간)

상황: 봄 → 마음의 변화

③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상황: 봄 들판을 건너고 있는데, 건너기가 힘들다.

→ 왜까?(의문1)

배경: 김제 봄들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내리는

그 꽃잎 부리러*

→ 바로 이 꽃잎 때문이구나.(해결1)

이 배는 ⑥신포 어디쯤에 닿아 헤맨다

→ 신포 어디쯤에 그 무거운 꽃잎을 버리려 한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는 '꽃잎'을 버리기 위해 '신포 어디쯤'을 지향하고 있다.

배경: 신포 어디쯤

그런데 이 배는 과연 뭘까? (의문2) 일단 헤매이고 있다.

저 망해 다 쓸고 온 꽃샘바람 거기 부는 듯

몸 속에 곤두서는 봄 밖의 봄바람!

→ '꽃샘바람'이 '망해'(=바다)를 쓸고 왔고 그 바람이 내 몸 속에 곤두선다.

눈앞 해발이 양쪽 날개 펼친 구름

사이로 스미려다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 떼와 문득 마주친다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대상: 염소

상황: 화자=배=염소

→ '염소'라는 대상을 '배 한 척'으로 중첩시켰다. 이때, 염소'도'에 주목하면 화자가 염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현재 배의 이미지에 자신을 중첩시키고 있다. (해결2)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우연 황삿길 타박거리며 간다

대상: 새끼 염소

새끼 염소 한 마리가 뿌우연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간다.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털 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화자는 봄 들판에 멈칫거리고 싶다.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너머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동시에 화자는 '항구 몇 개'를 지향하고 있다.

상황: 내적 갈등 (봄 들판 ↔ 바다)

달이 끊긴 배 한 척,

'달이 끊긴'

→ 화자는 봄 들판과 바다 사이의 내적 갈등을 겪고있다.

- 김명인, 「봄길」-

* 부리러: 사람의 등에 지거나 자동차나 배 따위에 실었던 것을 내려놓으려.



— <독해 전 보기 분석> —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은 다른 대상으로 전이되면서 시적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가)에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인접하여 배치됨으로써 생명력을 띤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되고, (나)에서는 봄 들판과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의 이미지가 중첩됨으로써 공간에 속한 대상의 속성이 화자의 내면에 공유된다.

전이: 대상¹ → 대상²

(가) 인공물과 자연물의 기준을 나누는 범주는 생명력의 유무

(나) 봄 들판과 바다는 다른 대상이지만 서로 중첩

※ 작품 독해 전 파악할 것

(가) <보기>를 통해 아스팔트는 인공물임을 파악 가능하다.

그러나 자연물에 해당하는 대상은 아직 모르겠다.

작품을 독해하며 찾아내보자. 한편 전이를 통해 이 둘의 경계가 완화된다는 것은 '자연물의 속성→인공물의 속성, 인공물의 속성→자연물의 속성'을 뜻하는 것이다.

(나) '봄 들판', 시간적 배경은 봄이라는 말이다. 또한 봄 들판과 바다는 상이하다고 하였으니 다른 대상이다.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①

①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가) '오후가 손질한다.', '지평선의 흥내를 낸다.'

(나) '너무 힘겹다', '달아 헤맨다', '문득 마주친다', '타박거리며 간다'

② 평양의 대비를 통해 /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가) '석양'과 '그림자'가 나와있지만 평양의 대비는 아니다. X

(나) X

③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 시적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가) '회색'으로 색채어O, 반복X

(나) X

④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가) X

(나) '출렁거리는'에서 O

⑤ 영탄적 표현을 통해 / 대상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가) X

(나) '몸 속에 곤두서는 봄 밖의 봄바람!'에서 O



32.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답: ①

<보 기>

시에서 특정 호칭의 사용은 화자와 대상 간의 관계나 거리를 조정하여 정서를 나타내는 기반이 된다.

①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혀서 화자의 우울함을 대상에게 투영한다.

지문 근거

너의 마음은

'너': 누구를 호명하는 것일까?

우울한 해저.

정서: 우울함

너의 가슴은

'너': 누구를 호명하는 것일까? 반복하고 있다.

구름들의 피곤한 그림자가 때때로 쉬러 오는

혈수있나?

회색의 잔디밭

회색이 혹시 아스팔트의 회색을 의미하는 것일까

· 독해 후 사고

앞서 제시된 '회색의 잔디밭'은 맥락상 아스팔트가 잔디밭과 지평선을 흉내내는 종이라고 파악하여 자연물의 속성이 인공물에 전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너'는 아스팔트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는 아스팔트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므로 의인화이고 화자 자신의 감정인 '우울함'을 대상인 아스팔트에 이입한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가 우울하기에 잔디밭도 회색으로 보였을 것이다.

한편, 앞서 제시된 '앞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는 아스팔트의 속성이 전이된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앞사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상황에 대응된다.

'너'라고 반복적으로 호명하여 '아스팔트'에게 인격적 특성을 부여했다. 따라서 '아스팔트'와의 심리적 거리감을 좁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화자의 우울한 정서를 아스팔트에게 이입한 감정 이입이 보인다.

- ② 대상과 각별한 관계를 형성하여 화자가 느낀 경이로움을 나타낸다.
- ③ 대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느낀 화자의 회의감을 드러낸다.
- ④ 대상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화자의 권태로움을 해소한다.
- ⑤ 대상과의 관계를 역전시켜 화자의 침울함을 극복한다.

3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서 화자는 '꽃이 피'는 것과 내면의 변화 간의 관련성을 인식한다.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에서 마음 간격(내면) 촘촘해져(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② ㉠에서 '건너기'의 힘들음을 자각한 화자는 이를 해소하고 싶은 마음에 ㉢로 향한다.

'꽃이 피면 마음 간격들 한층 촘촘해져 김제 봄들 건너는데 몸 건너기가 너무 힘겹다' 화자는 이로 인해 너무 무거워졌다. 따라서 '피기도 전에 봉오리째 저내리는 그 꽃잎 부리러 이 배는 신포 어디쯤에 달아 해맨다' 이 무거움을 해소하기 위해 ㉢로 향한다.

③ ㉢에서 화자는 '거기'에 부는 '꽃샘바람'을 '몸 속'에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

'저 망해 다 쓸고 온 꽃샘바람 거기 부는 듯 몸 속에 곤두서는 봄 밖의 봄바람!' '꽃샘바람'이 화자의 '몸 속'에 '곤두서고' 있다. 따라서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마음'과 '상심' 사이에서 변민하는 화자는 자신을 ㉢와 ㉣ 사이에 놓인 '달이 끊긴 배 한 척'으로 인식한다.

화자는 '신포 어디쯤'에서 '항구 몇 개'로 향하고 있다.

'덜 핀 꽃나무 돌레에서 멈춰서거라'는 '마음'과 '아지랑이 너머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는 '상심'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고 있고, 이는 자신을 '달이 끊긴 배 한척'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⑤ ㉣에서 화자는 자신의 목적지를 '끝내 닿을 수 없는' 곳이라고 인식한다.

지문 근거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너머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달이 끊긴 배 한 척,

'항구 몇 개'는 '아지랑이 너머' 존재하는 화자의 지향점이다. 따라서 '~에서' 정도 판단을 해야한다.

㉢는 배경이 아닌 대상이다.

#기출 Ref
 2406 오규원, 「봄」에서 대상인 담벽을 배경으로 바꿔치기를 했다.
 2509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에서도 대상(물고기) 중 대상¹(어린 것), 대상²(어미)를 바꿔치기해서 선지를 냈다.

※ 참조

'에서'
 2. 앞말이 출발점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은 다른 대상으로 전이되면서 시적의미를 풍부하게 한다. (가)에서는 도시 문명을 대표하는 아스팔트에 자연물이 인접하여 배치됨으로써 생명력을 띤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경계가 완화되고, (나)에서는 봄 들판과 바다라는 상이한 공간의 이미지가 중첩됨으로써 공간에 속한 대상의 속성이 화자의 내면에 공유된다.

- (가) 생명력O → 자연물 (가로수)
 생명력X → 인공물 (자동차, 아스팔트)
 (나) 봄 들판 / 바다

(가) 범주를 나누는 기준은 '생명력'이다.

① (가)에서 '4월'의 '가로수'는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상태로 제시되어 생명력을 띠지 않은 '아스팔트'의 속성이 전이되었음을 드러내고, (나)에서 들판을 건너는 화자의 '몸'은 바다를 건너는 '배'와 중첩되어 화자의 부유하는 내면을 드러낸다.

(가) '잎사귀를 붙이지 아니한 가로수'는 아스팔트의 속성이 전이된 자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잎사귀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생명력이 없는 상황에 대응된다.

(나) '건너다'라는 동사에 집중해서 이미지의 환기로 풀어도 좋지만 실전에서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 들판을 건너다에서 바다를 건너는 배의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에서 염소와 동일시함을 파악해 '화자=배=염소'를 떠올려서 판단하자.

② (가)에서 '고무바퀴를 신은 자동차의 아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자동차가 지닌 분주함이 아스팔트에 전이되어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완화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보기>의 범주 구별에 의하면 생명력의 유무에 따라 범주가 나뉜다. 자동차와 아스팔트는 생명력이 없는 대상으로 같은 범주에 속하기에 애초에 <보기>에서 요구한 생명력을 기준으로한 경계가 없다. 한편, 자동차와 아스팔트는 각각 동적 이미지와 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가 나뉘지 않느냐 반문할 수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 요구한 경계는 생명력의 유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와 아스팔트의 경계'에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 '지평선의 흉내'를 내는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가 '행인들'을 '위하'는 존재로 포착된 것은, 아스팔트가 '바다'의 속성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지문 근거

바다를 꿈꾸는 바람들의 탄식을 들으러 나오는 침묵한 행인들을 위하여

'위하여': 행인들의 위로를 해주나?

작은 아스팔트의 거리는

지평선의 흉내를 낸다.

대상: 아스팔트

→ 아! 지평선=바다(생명력O)에서 아스팔트(생명력X)로 생명력이 전이된 것을 '흉내를 낸다.'라고 한 것이군.

④ (나)에서 들판과 바다라는 공간의 중첩은 '염소'도 '제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 것으로 전이되면서, 화자가 '염소'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지문 근거

골짜기 비집고 빠져나오는 염소 떼와 문득 마주친다
 염소도 제 한 몸 한 척 배로 따로 띄우는지

대상: 염소

상황: 화자=배=염소

→ '염소'라는 대상을 '배 한 척'으로 중첩시켰다. 이때, '염소'도 '주목하면 화자가 염소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화자는 현재 배의 이미지에 자신을 중첩시키고 있다.

⑤ (나)에서 '새끼 염소'가 가는 '지평도 뿌우연 황삿길'은 화자가 향하는 '아지랑이 너머'와 중첩되면서, 자신이 지향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쉽지 않으리라는 화자의 인식을 암시한다.

지문 근거

만경 저쪽이 포구라는 듯

새끼 염소 한 마리,

지평도 뿌우연 황삿길 타박거리며 간다

대상: 새끼 염소

새끼 염소 한 마리가 뿌우연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을 향해간다.

마음은 곁가지로 펄럭거리며 털 핀 꽃나무

둘레에서 멈칫거리자 하지만

화자는 봄 들판에 멈칫거리고 싶다.

남몰래 출렁거리는 상심은 아지랑이 너머

끝내 닿을 수 없는 ㉠항구 몇 개는 더 지워야 한다고

동시에 화자는 '항구 몇 개'를 지향하고 있다.

상황: 내적 갈등 (봄 들판 ↔ 바다)

달이 끊긴 배 한 척,

'달이 끊긴'

→ 화자는 봄 들판과 바다 사이의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

'뿌우연'에서 불확실성을 드러낸다. 이는 '항구 몇 개'로 향하는 길에 존재하는 '아지랑이'와 중첩되며 화자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드러



낸다.

